

지역 소식통

김제시, 봄맞이 주요도로 일제 대청소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봄을 맞아 진입 도로 중심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무단 투기 쓰레기 일제 대청소를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제시 청소자원과는 이번 대청소는 2월 한달 동안을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공주로, 민경로, 봉황로 등으로 하공로 북쪽 등 국도, 지방도 100km에 대해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일제 정비와 함께 무단투기 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처분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하여 홍보하는 등 주민 계도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3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박차

김제시는 2023년도 정기간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22년 재산세 과세자료를 신규 과세대상으로 이관하고, 종합적인 2023년 정기간 재산세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재산세에 지방세의 대표 세목으로서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며, 정확한 부과를 위해 연중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7월과 9월에 정기간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를 위해 2022년 6월 이후의 변동자료를 오는 2023년 5월까지 정비하게 된다.

정비대상으로는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건물의 신·증축 및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과세대상 자체의 변동사항과 재산세(토지) 과세구분의 적정 여부 확인 및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 여부 조사 등과 같이 세원관리 변동사항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또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도 실시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탄소중립 건축물’로 새롭게 탄생

완주군 농기센터, 환경부 공모 탄소중립 시범사업 선정... 온실가스배출량제로설계 본격화

완주군 고산면의 노후건물인 농업기술센터가 국비 지원을 받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의 ‘탄소중립 건축물’로 새롭게 탄생할 전망이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 건축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전날 개최하고 연면적 3,941㎡의 센터 내 본관동과 완주종합분식센터 등 7개동에 대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설계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상쇄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중간보고서는 농업기술센터 내 노후건물의 단열과 창호교체, 에너지 관리시스템,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신설 등 그린 리모델링으

로 탄소중립을 실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1+++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녹색 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선도형 모델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 2021년 환경부 공모의 탄소중립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80억 원을 들여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를 탄소중립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5개 시설의 선도모델을 선정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며, 완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연구시설군(群)으로 선정된 바 있다.

완주군은 지난해 9월에 건축 설계 용역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착수보고회와 1~3차 공청회를 거쳐 이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완주군은 건축 인허가 과정을 거쳐 최종 설계도서가 납품된 후에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어서 공공기관 탄소중립 시범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유희태 군수는 “공공부문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며 “농업기술센터의 탄소중립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민간 부문의 확산을 유도해 나가는 좋은 모범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전북 경찰청 박승준 과장, 이달 5번째 최고액 기탁

김제시, 출향인들의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잇따라

김제시에 고향사랑기부 최고액인 500만원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전북도 경찰청 박승준 경무기획보좌장비과장이 고향인 김제를 직접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함으로써 2월 다섯 번째 최고액 기부자가 되었다.

전북 경찰청 박승준 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인터넷이나 전국 농협



어디서든 기부할 수 있지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깊게 전달하고자 직접 방문하여 기부의사를 밝혔다.”며 “이 제도를 통해 고향인 김제시에

기부하여 고향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을 통한 출향인분들의 이어지는 고향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김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고향뿐만 아니라 현재 주소를 제외하고 관심이 있는 지역이면 어디에나 기부할 수 있고,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 농협 방문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부가 가능한 제도이다.

김제시에 기부하면 농산물꾸러미, 쌀, 소고기, 고구마 말랭이, 육양금액, 모싯잎 송편, 김제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수도요금 상습·고액 체납자 강력 징수

내달까지 특별 징수기간 운영

완주군이 수도물 원활한 공급과 하수처리장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15일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 동안을 장반기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 등에 강도 높은 체납활동을 벌인다. 이 기간, 사업소는 2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기동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권역별·지역별로 순회하며 상·하수도 요금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와 1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요금 납부를 독려한다. 필요시 관련법규에 따라 단수처분까지 실시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로 분류된 있는 속박업소, 대중목욕탕, 음식점, 대형 복합건물, 원룸형계의 집합건물 등 수도물 대용량 사업장들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 활동을 벌인다.

최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체납수용자들이 단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수도사업소는 체납자에 대해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3건 이상 체납자와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단수계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 부과된 상하수도 요금은 70억 원, 3회 이상 체납요금은 3억9200만원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잔여 포인트로 기부

완주군, 3만원 포인트 적립시... 취약계층에 로컬푸드 꾸러미 배송

완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잔여포인트를 기부사업과 연계해 주목받고 있다.

15일 완주군은 기부자가 사용하고 남은 잔여포인트를 활용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답례품 중 하나인 ‘로컬푸드 꾸러미’ 상품을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금액이 3만원에 도달하면 기부자를 대신해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배송해준다.

지원 대상은 군이 선정하고 답례품 공급은 비영리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맡아 수행한다.

기부자는 해당 답례품이 어떠한 사유로 해당 가정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답례품 배송 결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지난 14일 처음으로 3만원에 도달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에 로컬푸드 꾸러미를 전달했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기금 사업

을 ‘먹거리 복지’와 ‘에너지 복지’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운용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연계해 기부자도 직접 ‘먹거리 복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답례품을 마련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 응원해준다면 지역사회에는 큰 힘이 되고 기적도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제공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전국 농협 은행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치매지원사업’ 협력 방안 모색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사업 내실화 위한 간담회 개최

김제시는 15일 치매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매예방 지원사업 담당자를 비롯하여 14개 읍·면 보건지소 실무자가 참석하였다.

치매 조기검진, 치매 가족지원 서비스 인식개선 교육 등 치매안심센터의 전반적인 사업 안내 후 올해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치매어르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과 치매 예방관리 사업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시내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에 치매예방교실



및 사랑(愛)쉼터 분소(금구, 만경) 설치 운영하여 지역 간 격차 완화, 건강 불평등 및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명자 김제시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치매질환의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해 치매로부터 안전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